

■ 양돈산업



이 병 석
대한양돈협회 팀장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 시급

올 한해는 지난해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확정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육류유통시장에 본격 출시되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 국민들의 미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 정서속에 소비가 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하반기에는 미산 쇠고기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내 양돈현장에서는 올 초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07년 돈카로 시작해 상당한 어려움을 예견했으나 4월 이후 돼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9월 초순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되어 높은 사료값으로 인해 높아진 생산비 가운데도 어느 정도 경영에 숨통을 트인 한해가 되었다. 그러나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돼지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해 향후 국내 돼지 가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지속 나오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축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가축분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농가들을 괴롭게 하고 있으며,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에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높은 사료가격 수준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양돈농가들을 더욱 시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에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 해양배출 물질별로 배출량을 설정토록 하고, 하반기에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쿼터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배출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남은 음식물 폐수 등의 가축분뇨 둔갑에 대한 감독 철저 등을 요청하는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모성질환 해소를 위한 사육단계 HACCP 사업 지속 확대, 농가 교육 강화,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국제 곡물 상승에 따른 사료안정화대책,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돼지생산 안정제 및 실질적인 폐업 보상제도 도입, 국산돼지고기 부정유통을 적발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제 확대 시행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음식

점 원산지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육류중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둔갑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돼지고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더욱 확대하여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서서히 바로 세울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향후 국내 양돈 생산기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국내 양돈산업 현황

가) 돼지 사육두수 및 호수 변화

돼지 사육두수는 07년 평균 960만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올해는 900만두를 전후해 조정되고 있다. 모돈 두수는 06년 및 07년 연속으로 평균 1백만두를 넘겼으나 올해는 90만두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향후 돼지 사육두수가 900만두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진다.

2008년말 현재 돼지 사육농가는 약8천농가로 1년전인 06년말 기준 9,800농가에 비해 약20% 가량 대폭 감소해 사료값 폭등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및 소모성질환 등 내부적인 요소에 의한 농가의 폐업 수준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 사육농가수는 지난 몇 년간의 높은 돈가에 힘

입어 그 감소세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07년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의 사육의향이 갈수록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양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비추어볼때 양돈농가 감소추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까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 1호당 돼지사육두수는 06년 830두, 07년 977두, 그리고 08년에는 1,140두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의 37.6%로 전년 32% 보다 약 8% 증가하다. 이들 농가가 전체 사육두수 약 900만두중 84.3%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은 전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간 돼지도축두수는 06년까지 해마다 계속 감소하다가 07년에는 모돈수 증가에 힘입어 약간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모돈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7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돼지 썬코바이러스(PCV-2) 자가백신 처치 등으로 인해 소모성질환의 피해로부터 약간 벗어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돼지 썬코 자가백신 접종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표1〉 연도별 돼지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단위 : 천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사육두수	8,908	8,962	9,382	9,605	9,000
모돈수	935	966	1,012	1,004	1,000
도축두수	15,202	14,620	13,003	13,597	13,700

※ 2008년도는 추정치

〈표2〉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배합사료 생산량	5,663	5,419	5,170	5,175	5,401	5,150

*2008년도는 예상치

나) 양돈용배합사료 생산현황

양돈용배합사료 생산량은 지난 06년 5,175천톤, 07년 5,401천톤에 이어 올해는 돼지사육두수 감소와 따라 5,150천톤 생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세계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추출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세계 곡물 재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과거 10년 평균 대비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사료 허실 방지 등 사양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동향

돼지고기 총수요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92만6천301톤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소비량이 91만3천685톤, 수출량이 1만2천616톤을 차지했다. 국내 소비량 중에서는 국내산 소비가 68만1천765톤, 수입육 소비가 23만1천920톤을 차지함으로써 자급률은 약 74%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80% 이상을 기록하다가 2006년들어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자급률은 '06년 75.8%, '07년 74.1%로 크게 떨어졌다.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 서구화에 편승하여 '90년에 11.8kg에서 2005년도에 17.8kg으로 늘어나 불과 15여년 사이에 51%나 증가했다. 1인당 소비량 변동추이를 보면 '92~'93 13kg대, '94~'95 14kg대, '96~'98 15kg대, '99~'01 16kg대, '02~'05 17kg대로 소비량이 1kg 증가하는 데에는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소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에는 18.1kg으로 18kg을 넘어섰으며 2007년도에는 19.2kg, 올해는 19.4kg 정도가 소비 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06년 21만톤, 07년 24만7천톤에 이어 올해도 전년 수준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보여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서 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며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예상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돼지고기 시장 잠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3〉돼지고기 수급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증감(%) (08/07)
공급	이월량	24,746	46,653	47,729	57,514	20.5
	생산량	701,526	677,441	701,626	707,935	0.9
	수입량	173,598	210,555	247,493	239,998	△3.0
계		899,870	934,704	996,848	1,005,447	0.9
수요	소비량	838,479	874,704	926,718	940,159	1.5
	(1인당:kg)	(17.82)	(18.11)	(19.12)	(19.34)	(1.2)
	수출량	14,738	12,216	12,616	20,000	58.5
	재고량	46,653	47,729	57,514	45,288	△21.3

※2008년도는 추정치(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라) 2008년 양돈경영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돼지가격이 큰 폭의 하락속에 출발하였으나 다행히도 4월 이후 돼지값이 상승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연중 높은 가격을 형성하던 돼지가격이 올해 4/4분기 크게 하락되어 연평균 돼지가격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급등한 배합사료 가격과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소모성질환으로 인해 폐업농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올 한해도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한해였다.

2. 2008년 주요 이슈

가) 미국산 쇠고기 본격 수입

올 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한 해를 보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부위 포함 여부 등 상당한 진통이 끝난 뒤에 결국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정식 수입되어 국내 유통시장에 본격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

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본격 출시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산 돼지고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산업 대책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돈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하고 있다.

나)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 확대 시행’

돼지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만큼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사상유례없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양돈농가에 전반에 걸친 적자경영이 우려되고 있다. '06년 이후 전 세계적인 유가폭등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료원료 가격이 폭등하여 양돈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라) 돼지고기 수입 지속 증가

'07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24만7천톤이 늘어와 사상 최대치를 형성한 이후 올 한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지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분을 수입산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 재개되어 이후 그 판매량이 지속 확대될 경우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 가축분뇨 해양배출 대란 우려

올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킬터 허용량인 600만톤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해양배출업체의 허용량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 해양투기 중단사태까지 우려되었다. 실제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해양배출업체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10월부터 가축분뇨 수거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양배출업체가 수거비용이 싼 가축분뇨 수거를 중단하고 수거비용이 높은 다른 폐기물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기도 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하

반기에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킬터량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는 여전히 농가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었다.

바)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120개 업소' 인증 완료

'07년 처음으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체 8개의 국산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 후 올 한해는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120개를 선정했다. 양돈협회가 모집한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신청업소는 전국에서 236개업소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확대해 국내 돼지고기 유통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사육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3. 2009년 양돈산업 전망

그동안 큰 폭으로 인상된 사료가격과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 높은 가격하에서도 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전체 20%가량의 양돈농가가 폐업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농가의 필연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높은 돈가환경하에 높은 수준의 배합사료 가격은 양돈농가들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사료가격이 일정 수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 생산비 수준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이다.

또한 돼지 쉰코바이러스 자가백신 허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모성질환 개선효과는 보았으나 이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미지수여서 돼지 폐사가 급격히 완화될 것 같지는 않으며, 가축분뇨 처리가 여전히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내년도 한 해에도 결코 평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내 돼지가격이 본격 하락할 경우 자칫 국내 양돈산업 근간을 흔들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처를 완벽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FTA** 지원금 중 현대화시설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양돈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이렇듯 전반적인 어려운 양돈환경 속에서 자칫 국내 양돈산업 사육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양돈산업 생존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돼지가격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확대에 따른 변수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변수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경우 일정 수준 돼지가격이 뒷받침될 수 있어 과연 양돈농가들이 생산성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4. 2009년 해결해야 할 양돈산업 현안

국내 양돈산업은 사료값 폭등, 소모성질환 기승,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해외 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한·미 **FTA** 국회비준, 한·EU **FTA** 추진 등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내년에는 미국과 **FTA** 협상 비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생존전략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특히 향후 5년 이내 돼지열병 청정화가 진행되어 국산돈육의 일본 수출길을 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년도 돼지열병 청정화 본격 시행이 되는 해로써 그 어느해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경종농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현대화시설 자금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산 돼지고기와 국산돈육 차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08년 12월 22일 본격 시행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맞춰 유통감시 확대, 국산돼지고기 판매인증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렇듯 올 한해에도 앞서 열거한 현안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